

1강: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빌 1:1-11)

<빌립보서의 배경>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행 16장 11절 이하 참조)
바울의 옥중서신 중 하나(엡, 빌, 골, 몬)

* 참조: 바울서신 본문 읽기 순서

전문 읽기 - 단락 구분 후 단락별로 다시 읽기 - 각 단락 별 표제어 적기 - 역사적/문학적 맥락 살피기 ->>
각 단락별 주요 내용/구문/단어 주목 - 주요 주제/신학 살피기 - 본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 - 적용점 찾기

빌 1:1-11 빌립보서의 서론(인사 - 감사 - 기도)

1) 1-2절: 인사말

1 그리스도 예수 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 3-8절: 감사와 간구, 확신

3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 간구할 때마다 너희 (모든)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7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8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3) 9-11절: 기도

9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정리/나눔 질문>

1. 캄캄한 감옥 안에서 매를 맞아 생긴 상처, 추위, 굶주림, 외로움, 막막함 등으로 잔뜩 지쳤을 바울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게 했던 것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던 빌립보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역자(참여자, 5절, 7절)의 가치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거뭇거뭇한 손으로 편지를 적어 내려가며 오롯이 그들을 향해서 건잡을 수 없이 쏟아지는 감사와 간구, 확신과 축복의 마음으로 벅차오른 바울의 기쁨 때문에,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지만 '기쁨의 서신'이라 부릅니다.

2. 여러분에게는 생각날 때마다 감사와 간구, 확신과 축복의 마음이 벅차오르게 하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미소를 잃지 않게 만들어 주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바울은 "너희 (모든) 무리"(4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범위/수를 넓혀 보시지요.

3. 9-11절의 기도문을 함께 모인 분들을 향해 읽어주며 축복해 주세요.

* 이외에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 내게 유독 와닿는 내용이 있다면 적어보세요.

2강 사슬에 매임과 기쁨(빌 1:12-18)

- 12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5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 그러면 무엇이냐 겉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

1. '내가 당한 일'(12절): '매임'(데스모스, 13, 14, 17절).

- 투옥 기간은 적어도 2년 이상(가이사라(행 24장) 혹은 로마(행 28장))

2. 매임(데스모스)의 결과: 2년 동안 복음의 전파에 '진전'(프로코페, 12절)

- 바울의 '데스모스'와 그리스도 복음의 '프로코페'(발전, 진보, 앞서나감)

3. '진전'의 이유: 바울의 매임 소식을 듣고, 형제 중 다수가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함(14절)

1) 겁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2가지 동기: 시기어린 경쟁, 애정어린 동역

A 투기와 분쟁으로(15절)

B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 전파(15절)

B' 바울의 사도성 인정 + 사랑으로 동역(16절)

A' 옥에 갇힌 바울을 더 괴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 순수하지 못한 경쟁심으로 전파(17절)

- >> 'A 부류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 갇힌 바울을 어떻게 언급했을까요?

2) '묶인' 바울의 심정(18절)

복음 전파가 불순한 의도이든 순수한 의도이든 아무런 상관도 없었다!

- 어떻게든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 여기서 바울이 확신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리/나눔 질문>

1. 바울의 '매임'은 감옥 안에서 사슬이 아닌, 점점 널리 퍼져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임'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미 묶여 있는 바울을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프로코페'를 자신의 '프로코페'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구요.

2. 그리스도께 철저히 매여 있으면 어떤 '데스모스'도 '프로코페'이며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묶여 있으면, 나의 '데스모스'는 정체나 퇴보에 불과하며, 그게 길어지면 실패로 보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나를 묶고 있는 '끈의 끝'을 한 번 살펴 보시고, 그 끝을 매듭지어 반드시 그리스도께 거십시오.

3강 교회의 유익(빌 1:19-26)

빌립보교회를 생각하면 기뻐던 바울(1-11절),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갇혀 있어도 몹시 기뻐던 바울(12-18절)

(1) 19-21절:

19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2개의 '호티')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 이는 내게(‘에모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 22-24절:

22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3) 25-26절:

25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프로코페’)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26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카우케마’)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나눔 질문>

1.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바울이 훨씬 더 선호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23절) 여러분은 무엇을 훨씬 더 선호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선택할 지 몰라 내심 갈등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린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23-24절)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4강 복음에 합당한 삶(1:27-30)

빌립보교회를 생각하면 ‘기뻐던’ 바울(1-11절),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감히 있어도 몹시 ‘기뻐던’ 바울(12-18절), 자신에게 “훨씬 더 좋은” 죽음보다 교회에 “더 유익한” 삶을 택한 파울은 ‘함께 하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생기고, ‘함께 하면’ 그리스도 자랑을 가득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19-26절). **함께 하면 유익한 사람 바울!**

27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폴리튜오마이, 시민답게 행동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프뉴마, 영)으로 **서서**(굳건히 서서)

한 뜻(프쉬케, 혼)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어깨를 맞대고 함께 뛰기)과

28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29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0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나눔 질문>

1.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나라 시민 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단호한 결의도 크게 작용합니다. 견고히 서서, 어깨를 맞대고 전진하며, 엄습해 오는 온갖 두려움을 함께 이겨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증명해 냅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6절).

2. 보통은 ‘고난’을 은혜와 별개로 생각하거나, 신앙 생활이 일그러져 일어난 ‘벌’로 간주하기 쉽지만, 사실 고난은 은혜의 필연적인 목적입니다.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큰 은혜의 결과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5강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품기(2:1-4)

빌립보교회를 생각하면 ‘기뻐던’ 바울(1-11절),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감히 있어도 몹시 ‘기뻐던’ 바울(12-18절), 자신에게 “훨씬 더 좋은” 죽음보다 교회에 “더 유익한” 삶을 택한 파울은 ‘함께 하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생기고, ‘함께 하면’ 그리스도 자랑을 가득 만들어주는, “함께 하면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19-26절).

그런 바울이 교회에 먼저 당부했던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 즉 한마음 한 뜻으로 굳건히 서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전진하며, 고난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삶이었습니다(27-30절).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므로**...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하나님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하나님의 무슨)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 마음을 같이하여(프로네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프쉬케, 혼; cf. 1:27)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프로네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헬라어 본문엔 2절에 나옴)

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정리 및 나눔 질문>

1.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 위로부터 교회에게 권면,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가 주어졌습니다. 교회의 화합에 꼭 필요한 신령한 은혜가 쏟아부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 아래에서 교회가 할 일은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과 이타적 관심은 취하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는 ‘사역’입니다.

2. 교회의 하나됨은 성령 하나님이 일구어 내신 일이지만, 교회가 힘써 지켜야 하는 매우 실천적이며 구체적인 사역입니다. 이를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위의 3-4절 내용을 토대로 나누시고, 나눔 내용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며 각오하셔서, 우리의 ‘하나됨’에 귀한 보탬이 되어 주세요.

6강 그리스도의 마음(빌 2:5-11)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한마음 한 뜻으로 굳건히 서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전진하며, 고난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삶이었습니다(27-30절). 이를 위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다툼과 허영**은 버리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남을 살피는 **돌봄**을 위해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바울은 역설했습니다(2:1-4). 그리곤 이제껏 줄곧 강조된 '한 마음'(같은 생각, 프로네오)이 오늘 본문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프로네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 직역: "너희 안에 이것을 생각하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것이다"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모르페')시나(헬라어 본문에는 접속사 없음)

하나님과 동등됨('이소스')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케노오') 종의 형체('모르페')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 사람의 모양('스케마')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 **상반절의 결론!**

9 **이러므로**(6-8절의 결과) 하나님이(유일한 주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 **최종 결론!**

<정리 및 나눔 질문>

1.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녀야 할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 즉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입니다(빌 2:5). '겸손'이 세상에선 무기력해 보이며 정적인 성향 짙으로 치부되기 쉬우나, 하나님 나라에선 어떤 것보다 강력하며 역동적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모든 이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꿇게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말할 수 없는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2.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품는 일은 그리스도를 쫓 빼닮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권력을 누릴 수 있으나 누리지 않는 겸손,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겸손, 자신을 낮추어(남을 높이며) 복종하는 겸손, 성과를 하나님의 손에 오롯이 맡기는 겸손을 품는 일 말입니다. 찬양 가사처럼, 예수만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 힘쓰시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빌 2:5).

7강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구원(빌 2:12-18)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한마음 한 뜻으로 굳건히 서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전진하며, 고난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삶이었습니다(1:27-30). 이를 위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다툼과 허영**은 버리고, **겸손과 돌봄**을 위해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바울은 역설했습니다(2:1-4). 이 한 마음은 만물이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겸손’**이며, 그래서 **겸손**은 바람직한 성품을 넘어 위대한 **‘일’**이자 **‘능력’**입니다(2:5-11).

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cf. 고전 2:3; 고후 7:15; 엡 6:5) **너희 구원을 이루라(1)**

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cf. 출 15-17장)가 **없이 하라(2)**

- 첫 번째 목적: 15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 두 번째 목적: 16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7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cf. 히 11:6)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3)**

<정리 및 나눔 질문>

1. 구원은 삶을 규정하고, 삶은 구원을 증명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두렵고 떨림으로” 입증해 가는 삶입니다. 이는 모든 일(행동)을 할 때 ‘원망’과 ‘시비’를 버리며 우리 마음/생각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눈여겨 보십시오. 지금껏 본문이 꾸준히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어떤 대단한 업적이나 열정적인 활동 이전에, 내면의 마음/생각을 주의 마음(겸손)으로 채워 가지런히 하는 일입니다. 행동보다 마음이 우선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13절).

2.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길, 세상에서 흠이 없고 순전한 빛으로 살아가는 길, 마지막 때에 자랑할 일이 생기는 길,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제사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서로 기쁨을 나눕니다.

한편, 역으로, 원망과 시비로 행하는(일하는/신앙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것도, 빛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아니며, 마지막 때에 자랑할 게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쁨은 사라진 지 오래일 것입니다.

—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모든 일’에서 말입니다.

8강 그리스도 예수의 일(빌 2:19-30)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한마음 한 뜻으로 굳건히 서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전진하며, 고난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삶이었습니다(1:27-30). 이를 위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다툼과 허영은 버리고, 겸손과 돌봄을 온전하게 하는 한 마음(2:1-4),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겸손)**을 품어야 합니다(2:5-11). 우리 안에 이 겸손이 내재할 때, 참으로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더욱 믿게 되고, 원망과 시비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서로를 섬기는 삶,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제사가 기쁨으로 이어집니다(12-18절).

19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의 사정을 앎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0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21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2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23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24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25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 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26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27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28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29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30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1. 두 사람은 바울에게, 그리고 빌립보교회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 가지 패턴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1) 디모데

- 바울에게(22절):

- 빌립보교회에게(20절):

(2) 에바브로디도

- 바울에게(25절):

- 빌립보교회에게(26절):

2.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교회에 보내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1) 디모데를 보내서(19절):

(2)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28절):

* 4번의 '근심' 언급(26-28절)

3. 두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나요(21, 30절)?

<정리 및 나눔 질문>

1.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는 '자기를 비우신(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더 나은 것'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서로 닮아 있습니다. 이들 셋이 주 안에서 연합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이들을 둔 빌립보교회는 든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2. 우리 교회 안팎에서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9강 가장 고상한 지식(빌 3:1-9)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다툼과 허영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겸손)**으로 서로를 겸손하게 돌보는 삶입니다(2:1-11). 이때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되고, 원망과 시비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서로를 섬기는 믿음의 제사가 기쁨으로 이어집니다(12-18절). 바울 곁에는 이런 제사를 드리는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가 있었는데, 교회를 돕기 위해 과감히 파송했습니다(19-30절). 이들 모두는 자신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으로 여기고 선택한, 그리스도를 닮은(imitatio Christi) 사람들이었습니다.

-
- 1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 전하니라
 - 2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 3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 4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 5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종**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 6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 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

1. 바울은 빌립보교회를 거짓 가르침으로 위협하는 ‘유대주의자’(Judaizer)를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 부르며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1-3절). 그 거짓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행 15:1-5 참조)

2. 사도바울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던 건 자랑거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거론한 7가지 자랑거리는 유대인이라면 늘 동경하던 일명 ‘금수저’ 목록에 해당됩니다(4-6절).

3. 이 자랑거리들이 바울에게(모든 유대인들이 동경하던) ‘유익하던 것’이었지만(7절), 이제는 자랑거리들을 포함, 모든 것(지위/영향력/인정/사랑 등)을 ‘해’로, ‘잃어버린 것’으로, ‘배설물’로 여겼습니다(7-8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8절)

* 유익, 해, 가장 고상하다, 얻다(7-8절)

<정리 및 나눔 질문>

1. 초대교회 안에는 모세 율법을 행하고, 할례(정결 예식, 안식일)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짓 가르침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복음을 왜곡시킨 그들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의’(구원)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복음)이 가장 값어치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2. 마음 속에 튼튼한 ‘양팔저울’ 하나씩 늘 품고 계세요. 저울 한편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구요. 그리곤 맞은 편에는 평소 몹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유익해 보이는 것, 자랑하고 싶은 것을 수시로 올려 보세요. 그 맞은 편에 자기 자신을 올려 보는 것도 절대 잊지 마시구요.

10강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라(빌 3:10-16)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저울 한켠에 올려놓으니 이전에 그렇게 무게감 있던 것들 중 어떤 것도 중한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을 ‘해’와 ‘배설물’로 여기게 된 바울은 간절한 소망을 붙잡기 위한 ‘달음질’에 관해 말씀합니다.

-
- 1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

1. 10절을 보면, 바울은 3가지, 즉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뒤나미스), 고난에 참여함(코이노니아)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11절)?

-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cf. 고후 4:10; 엡 2:5).

2. 바울은 그 간절한 마음을 결승 지점을 향해 달리는 ‘달음질’에 비유하며(12-14절), 결승점을 3가지로 표현합니다.

- 앞에 있는 것(13절)
- 꾀대(결승점에 꼽힌 기둥, 14절)
-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14절)

** 여기서 12절하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바울이 달음질할 수 있게 만든 동력이 드러납니다.

“나는 (끊임없이) 달려나가 (고육) 붙잡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고육)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3. 결승점을 향해 달리려면 결승점을 주시하는 것 외에도 꼭 필요한 요령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13절)?

4. 그런데 빌립보교회에는 다른 생각을 품은 이들, 즉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 있었습니다(15절). 그들에 대한 바울의 기대와 권면을 보십시오(15절-16절).

- 기대(15절):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니라”
 - 권면(16절):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스토이케오)”
-

<정리 및 나눔 질문>

1. 우리 역시 꾀대, 즉 그리스도와와의 완전한 연합은 아직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실제 만나 그분의 품에 ‘와락’ 안기는 것 말입니다. 그 ‘결승점’을 향해 우리가 꾸준히 달릴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그 달음질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아 주실 때까지 함께 나란히 달려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줄지어 함께 달려 가시겠습니까?

2. 꾀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내가 노력을 기울여 잊어버려야 할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1강 하늘 시민권(빌 3:17-21)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저울 한켠에 올려놓고는 이전에 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모두 ‘해’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꾀대, 즉 그리스도와와의 완전한 연합(부활)이라는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자고 역설합니다. 아직 온전히 붙잡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달라도 함께 나란히 달려가자며 ‘다양성 속에서의 조화’(unity in diversity)를 권면합니다.

-
- 17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 18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 19 그들의 마음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 20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 21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

1. 바울이 교회를 향해 자신 및 동역자들(우리)을 함께 본받기를 원했습니다(17절; cf. 고전 4:16; 11:1; 살전 1:6; 2:10; 살후 3:7,9). 그 본받을 점을 직전 본문(3:10-16)을 통해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고난에 동참, 그리스도와와의 완전한 연합(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삶
 - 이 달음질을 위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림, 그 과정 중에 생각과 입장이 다르지만 함께 달려가기

“그리고…그와 같이 행하는(본이 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찾아보라)”: 가까운 곳에서도 찾아보라

2. 바울이 본받으라고 요청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은, 이들이 십자가가 구원의 길임을 부정하며 다른 길을 구원의 길이라 미혹했다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18-19절).
- 신(데오스)은 배: 그 영광(독사)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이 아닌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할례(정결 예식, 안식일)를 지켜야 옳다며, 교회를 다니며 전한 열정적인 유대인들(예수님의 시대 당시 유대인들; 회심 이전의 바울).

3. 그러나 바울을 본받는 자들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20절)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부활을 소망합니다(21절)
- 1) 하늘에 있는 시민권(cf. 로마 시민권)

- 2) 부활이란? 우리의 낮은 몸 ->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는 것(‘헌 집 주고 새 집 받는 것’ 아님)
- ‘변하게 하다’의 주어는 주 예수 그리스도
- * 참조: 부활과 관련된 당시 사람들의 생각

<정리 및 나눔 질문>

1.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 길을 걷는 일에 본이 되어 주는 사람을 가까이서 찾고 만나는 일이 귀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시민권을 하늘에 둔 자로 살아가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애타게 기다리며, 바울처럼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는 신분입니다.
2.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을 나보다 앞서 가며 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본받을 만한 분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3. 여러분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이 아닌 하늘에 있습니까? 그 자랑스러운 시민권을 수시로 꺼내보십니까? 오늘도 두손 모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부활의 소망에 목말라 하셨습니까?

12강 나의 기쁨과 면류관(빌 4:1-5)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이들 대신 자신을 본받고, 가까이 있는 신앙의 모델을 찾으라고 권했습니다. 교회를 향해, 당시 누구나 바라고 원하던 로마 시민권 대신, 하늘에 있는 시민권에 소망을 두고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존재임을 증언했습니다(3:17-21).

-
- 1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 2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 3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 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 5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

1.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랑 받고 사모함 받는’ 형제들이며 ‘기쁨 자체’이자, 심지어는 ‘면류관’(살전 2:19 참조)이라고 고백합니다(1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2.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게, 두 여인에게 품으라고 권하는 주 안에서의 같은 마음은 무엇일까요?(2절: 2:1-5 참조).

3. 교회 전체는(‘명예를 같이한 너’) 두 여인 및 동역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3절).

4. 교회 전체를 향한 권면 두 가지가 4-5절에 나옵니다. 또박또박 나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적어보세요.

1)

2)

* **관용(헬, 에피에이케스)**: 할 수/누릴 수 있지만 타인을 위해 행위/권리/이득을 내려놓는 것(배려, 너그러움, 정중함, 인내, 사려깊음 등)

5.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1절하)는 말씀이 2-5절 전체의 권면과 직결된 말씀이라면, 5절 끝에는 그래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를 명시합니다. 아래에, 그리고 마음에 적어보세요.

<정리 및 나눔 질문>

1. 교회는 명예를 같이 짚어진 이들의 합입니다. 교회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이 서로를 기쁨이자 면류관으로 여기고,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를 돕습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안에서 실천되는 관용이 바깥 세상에 소문나는 공동체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 반드시 이루어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2. 여러분에게 교회 사람들은 기쁨이며 면류관입니까? 유오디아-순두게와 같은 관계에 놓인다면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 애쓰시겠습니까? 또한 그런 관계에 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슬기롭게 도와 주시겠습니까?

3. 주 안에서 늘 기뻐하며, 세상은 흥내낼 수 없는 관용을 모두가 알 정도로 생활화 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짐을 함께 짊어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굳건히 서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13강 기도와 간구와 자족(빌 4:6-13)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회를 향해 십자가를 부인하는 이들 대신 자신을 본받고, 가까이 있는 신앙의 모델을 찾으며, 하늘에 있는 시민권에 소망을 두고 부활을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3:17-21). 교회는 멍에를 같이 짚어진 서로를 면류관으로 여기고,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를 돕는 이들이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안에서 실천되는 관용(에피에이케스)이 바깥 세상에 소문나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4:1-5).

-
- 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 8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 9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 1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 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 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

1. 6절에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구할 때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그리하면’)는 하나님의 **평강(에이레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7절).

2. 8-9절의 헬라어 본문은 우리말 성경과 달리 한 문장으로, ‘이것들을’ **생각하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평강’(에이레네)**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 생각할 것들(당시 일반 사회에서 중요시 여기던 덕목들): 참, 경건, 옳음, 정결, 사랑, 칭찬.

*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덕이나 칭찬받을 만한 일을 찾거든 앞에 열거된 덕목들을 생각하라

3. 11-13절에서 가장 유명한 13절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11-12절과 반드시 연결시켜 읽어야 합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13절)는 뜻은 12절에 나열된 온갖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다(11절)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 빌립보교회가 바울을 잊었다는 단서(10절):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 ‘자족’(아우탈케이아, 평정/독립/자유): 인간이 오랜 훈련기간을 통해 도달하는 스토아/견유학파의 최고 가치
- 바울의 ‘역설적’ 자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잠 30:8-9 참조)

<정리 및 나눔 질문>

1. 하나님의 평강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신앙생활 뿐 아니라 세상에서의 바른 삶을 생각하고 실천할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처럼 ‘자족’의 비결까지 배우고 자기 것으로 갖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2. 앞서 나온 내용(명령, 덕목, 비결 등) 중에서, 현재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한 부분은 무엇입니까?